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 이해린, 김해인, 종인 이렇게 놀았다.  
12시쯤 학교에서 만났다. 만나서 튀덕순에서 피카츄 돈가스를 먹었다.  
맛있었다. 그다음 문구킹으로 갔다.

그다음 점핑 파크로 갔다. 점핑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끊었다. 학교에서 놀다 집으로 갔다.



추억의 음식 '피카츄 돈가스',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됐다 | 위키트리